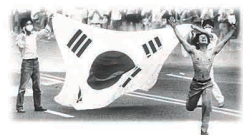




5·18 민주묘지에 피어난 무지개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광장의 분수대 물줄기 위로 13일 낮 상서로운 무지개가 나타나 참배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날 광주지역은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를 보였다. 기상청은 오는 15일부터 주말까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5월과 6월의 합창

<상> 눈물 - 5월의 기억

'광주의恨' 6월 항쟁으로 폭발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쌓인 한(恨)과 울분을 삼키며 군사정권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또 한 번의 항쟁을 준비했습니다."

80년 5월 항쟁이 신군부의 피의 진압으로 패배하면서 광주시민들은 엄청난 좌절감과 피해의식에 빠져들었다. 광주·전남 민주화 세력은 대부분 체포 구금되거나 수배자 신세가 됐다.

하지만 광주시민과 피해 당사자, 민주세력들은 충격과 실의에서 벗어나 서울 퍼런 군사정권의 탄압에 맞서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았다. 5월의 아픔과 패배에서 벗어나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부당한 권력과 또 다른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저항운동은 5월 항쟁의 직접 피해자인 유가족과 구속자 가족에 의해 주도됐다. 그해 5월31일 합동장례식을 가진 100여 명의 유족들은 '5·18 광주·거주족회'(회장 전계량)를 결성하고 정부기관 등에 대한 항의방문·점거농성·집회 시위 등을 벌여 나갔다. 구속자에 대한

5·18 광주민주항쟁 27주년, 4 반세기를 훌쩍 넘어선 5·18 광주 민주항쟁은 한국사회 민주운동을 선도해 온 역사가 됐다. 80년 5월 정신은 전 국민이 군부정권에 맞서 항거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었고, 마침내 1987년 또 하나의 민주주의 금자탑인 6·10 민주항쟁을 이끌어냈다. 눈물과 함성, 환호로 이어진 5월과 6월을 되돌아 본다.

유가족·구속자가족·종교계·시민들 군사정권에 맞서 또 다른 투쟁 주도

군사법정 1심 재판이 시작된 9월20일에는 '구속자 가족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국제사면위원회·주요 국가의 대사·국내 원로 성직자 등에게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구속자 가족회'는 이후 85년 '민주화실천 가족운동 협의회'(약칭 민가협·회장 안성례)로 발전·계승되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축들로 자리 잡았다.

82년 10월12일, 전남대 총학생회

장으로 5월 항쟁을 주도했던 박관현씨가 광주교도소에서 단식투쟁 중 숨지자 대학생들이 다시 일어났다. 전남대·조선대 학생들이 대규모 학내시위를 벌이며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섰다.

종교계도 81년 5월부터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기독교 연합회·불교계를 중심으로 구속자 석방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예술계에서는 80년 김춘태 시인이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

여'라는 시를 발표한 이후 81년부터 놀이패·노래패·극회·미술계 등에서 5월을 다룬 작품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군사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광주는 새로운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또 다른 새싹을 준비했다. 그 힘은 87년 6·10 항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이홍길)가 올해 슬로건을 '참여해요 5·18, 함께해요 6·10'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5월 추모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6월 항쟁 기념식·재민 퍼포먼스·시민체험 마당 등이 열린다.

지난 1987년 '민주쟁취 국민운동 전남본부' 홍보국장이었던 오병운(51·민노당 광주시당 위원장)씨는 "6·10 항쟁은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5·18 민주항쟁 이후 광주 시민들의 한과 울분이 잠복해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며 "6월 항쟁의 도화선은 5·18이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날

나가자 전거 끌고임 출근하고 있었시아

근디 감재기 어떤 놈이 딱 하니 뒤에 올라 타볼더라고. 난 뛰오렸더니, 고 어린놈이 같이 좀 감시다 허잖아. 가잔계 갔재. 가다본계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데 거 같아. 그러서 멈춰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감시다 감시다 그러데. 아까부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테 말을 놓는거이 우째 생져먹은 놈인가 불라고 뒤엘 봤시아. 근디 눈물 반 콧물 받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쪽에 총구놈이 먼저 보이데.

총구놈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허도...그면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아. 그왜 나가면건지 나 옷자락 붙들고놈이 먼건지 안튼 겁나 떨려볼래.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감시다 감시다 그러는데 영 발이 안떨어져브나. 총구놈이 날 쿵 찰러. 무슨 관재요? 하느디 말이 안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에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만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요 말이 딱 나오데.

고놈은 총구놈이 엘고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재. 심장이 쿵쿵쿵 허러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가 그자서 뒤를 본계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있데. 어린놈이...

그리고 보내놓고 나가 레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틀었시아.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고 뒤에서 감시다 감시다 해브나.

아직겨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대잉...

<정민경>

5·18 서울 청소년 백일장 시 대상 정민경양 "광주서 자라 5월 아픔 느껴 5·18 묘지에 가보고 싶어요"

열여덟 살 고3 소녀의 시에는 5월의 아픔과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5·18 민주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최근 주최한 '5·18 민주항쟁 기념 서울 청소년 백일장'에서 시 부문 대상을 차지한 정민경(18·경기여고 3년·사진) 양은 여수에서 태어나 7살 때까지 광주에서 자랐다. 지난 1995년 근무지를 옮긴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 갔다.

"친척들에게 들은 이야기, 광주에서 자란 경험이 오월의 아픔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절절한 사투리는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고..."

대상작인 '그날'은 자신의 자전거에 올라탄 학생이 진압군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도움을 청하는 학생을 진압군에게 내주고, 평생을 후회와 슬픔으로 살아야 했던 '나'에 대한 고해성사(告解聖事)인 것이다.

심사를 맡은 정희성 '민족문화학자'



회의' 이사장은 "처음 접하는 순간 몸이 떨렸다. 항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이렇게 쓸 수 없다"며 극찬했다. 정양은 "소외된 이들의 '그날'을 알리는 게 꿈"이라며 "수능이 끝나면 5·18 묘지에 가보고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 풍명정전 · 호수공원 정양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 분양문의 062-367-9000

나원참 (7208) 김중두



KCC (Korea Construction Chemicals) products including DS 건설, KCC형호, 시스토타일,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실리콘 방수제, 접착제, 테이프. Contact: 062-514-3002, 061-337-9605, 062-525-9002, 063-271-5051

중학생 '구미역 폭파' 장난 소동

○중학생이 '구미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장난신킨교를 하는 바람에 한때 큰 소동.

○경북 구미에 사는 A군(14·중2)은 13일 오전 8시께 휴대전화의 이용해 '이제 내 말을 순순히 듣는 게 좋을 것이다. 오늘 오전 10시 구미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서울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로 보낸것.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구경찰청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과 구미경찰서 수사대 등 모두 250여 명을 동원해 3시간여 동안 역 내 수색작업과 이용객들에 대한 검문검색.

○경찰은 공휴일인데다 이동통신사 사옥 이전으로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소유자 파악이 어렵자 발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설득한 끝에 A군을 검거했으나, 형사미성년자로서 조사 후 귀가조치. /연합뉴스

세계스타·세기보청기



Advertisement for Segistar hearing aids. Features a donkey head image. Text: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www.segistar.co.kr', '1588-8499 | 080-222-0100'. Includes various certification logos like FDA, CE, ISO, etc.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and legal notices for Segistar.